러, 그루지야 평화협정안 서명

트리빌시 인근 군대 철수…나토, 오늘 러시아와 관계 재고 논의

러시아가 그루지야 내 자치 영토인 남오세티야의 독립 문제로 촉발된 그루지야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미하일 사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이 서명한 평화협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이 16일 밝혔다.

프랑스가 중재한 이 평화협정안은 양국 군대가 지난 8일 전쟁 발발 이전 위치로 철수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서명과 거의 동시에 그루지야 수도 트빌리시 인근 고리시 등에서 철수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일부 정찰 부대만 남아 그루지야군이 버리고 간 무기 회수 및 해당 지역 당국자들과 통제권 이양 협상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협정안 서명을 계기로 평화안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그루지야 영토 내 항구적 안정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중재 노력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오는 19일 브뤼셀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재고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커트 볼커 NATO 주재 미국 대사는 독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NATO 간 관계에 대해 우리끼리 논의할 계획"이라며 "2002년 설립된 NATO-러시아 위원회(NRC)를 해체하진 않더라도 관계는 동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평화안에 서명한 것은 '다행스런 조치'라며 환영했다.

유엔이 그루지야 난민 숫자를 11만 8천명으로 파악한 가운데 미국은 그루지야 난민을 위해 인도적 구호물자를 실은 수송기를 보내는 등 긴급 지원을 시작했다. 16일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한 미군 수송기. /연합뉴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그루지야에 대한 러시아군의 행동을 '공습'이라고 규정하면서 "전 세계 자유국가들에 이런 행동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그루지야의 주권과 영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모든 그루지야 영토에서 침략군을 철수시키기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단이 최근 발생한 그루지야와 러시아 간 교전사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구호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그루지야와 러시아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그루지야 "민간인 등 182명 사망"

그루지야 정부는 16일 러시아와의 교전 과정에서 민간인 67명을 포함, 모두 18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부상자는 479명으로, 이 가운데 157명이 민간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루지야 보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족이 절단되고 눈알이 빠진 시신들을 수습하고 있다. 전율을 느낀다"면서 "러시아인 혹은 용병들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은 남오세티야에서 최소 2천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러시아 시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한·미 "북핵 검증체계 조속 마련"

뉴욕서 6자회담 대표 회동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왼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에서 회동을 갖고 기자들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5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서 회동을 갖고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인 북 핵프로그램 검증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맨해튼의 주(駐)유엔 미국대표부에서 2시간 가까운 협의를 마친 뒤 힐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북한의 검증계획서를 받는대로 가능한 빨리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 외에는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며 검증체계 마련이 테러지원국 해제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고 "검증은 국제 기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라고 해서 (국제기준과) 다르게 할 생각은 없다. 따라서 북한은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북핵 검증체계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북한과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국제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동에 대해 "현재 중요한 것은 검증체계 마련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남북대화의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도 논의했다"면서 "남북대화의 중요성과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측은 전폭적 지지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에서 "2단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북측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5개국의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를 10월말까지 하기로 돼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심양에서 열린 북·일 간의 양자협의에도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일본이 앞으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조속히 참여토록 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뉴욕 회동에 이어 주말인 16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무부 당국자 등과 후속 협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어 도쿄로 건너가 19일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날 예정이다.

성 김 미국 대북 협상특사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방안 합의 도출을 위해 14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측 관계자들과 북핵 검증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말리아·에티오피아軍 민간인에 총격

대통령 호위 차량 폭발 대응…40여명 숨져

소말리아 정부군과 에티오피아군이 15일 폭탄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행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한 목격자는 압둘라히 유수프 대통령의 호위 차량이 모가디슈 공항으로 향하던 중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하자 정부군이 사격을 시작했다면서 이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4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당시 유수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모가디슈와 아프고예 사이 도로에서 에티오피아군을 노린 폭탄이 터지자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면서 35명이 사망했다고 또 다른 목격자가 전했다.

이번 총격사건은 유수프 대통령과 누르 하산 후세인 총리가 에티오피아의 중재로 아디스 아바바에서 예정된 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후세인 총리는 최근 유수프 대통령의 측근인 모가디슈 시장을 해임했으며, 이로 인해 유수프 대통령과 대립해 왔다.

한편 AFP통신은 에티오피아군이 모가디슈 아르비스카에서 민간 버스 2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최소 30명이 사망했으며, 총격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산소 고갈 '죽음의 바다' 10년마다 2배씩 늘어나

산소가 고갈돼 생물이 살 수 없는 이른바 '죽음의 바다'가 지난 1960년대 이후 10년마다 2배씩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14일 보도했다.

미국과 스웨덴 연구진은 사이언스지 최신호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강물에 흘러드는 화학물질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녹조류가 번식했다가 죽어 부패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고갈시켜 형성되는 '데드 존' 수가 이처럼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 연근해의 '죽음의 바다' 수를 405개로 집계하고 그 면적은 약 24만5천㎢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바마 44%
매케인 44%

美대선 지지율 박빙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추격기세가 본선이 가까워질 수록 거세지고 있다.

매케인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에서 앞서온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지난 7월(23-25일)에 이어 또 한번 따라 잡았다.

15일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미국의 유권자 2천6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4일 '오늘 투표를 한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케인과 오바마의 지지율이 44%로 똑 같이 나왔다.

이는 오바마의 지지율이 최근 3일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결과로 풀이됐다. 반면 매케인은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매케인의 최근의 기세가 본선 끝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매케인은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 '컴백 키드'로 불리며 화려하게 부활했었다.

매케인은 러시아와 그루지야와의 분쟁 발생 이후 연일 러시아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편 오바마는 8월 들어 평균 지지율 면에서는 47%로 43%인 매케인을 앞서고 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2%이다. /연합뉴스

공무원 합격강좌 "동영상"(국어, 영어 ,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무료지원서비스 (학원 수강생이 아니어도 입실환영)
한빛 공무원 패스 전문 독서실
예약접수중! 234-0234
광주 북구청앞 한빛고시학원 內
독서실 이용자 수강료 20% 할인
전국 최대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수많은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 하였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07타경 10122	1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산101-1 12099㎡ [문인숙 지분 전부]	임야	5,513,760 5,513,760	일괄매각
		동소 산110 1107㎡ [문인숙 지분 전부]	임야		
2007타경 11422	1	진도군 조도면 관대도리 1329 669㎡	대	10,035,000 10,035,000	제시외건물소재로 법정지상권성립여지불분명
	2	진도군 조도면 관대도리 산197 2579㎡	임야	1,160,550 1,160,550	
2007다경 13329	1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2-1 341㎡	대	13,719,000 13,719,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소재로법정지상권성립여지불분명
		동소 2-10 466㎡	대		
	2	동소 2-2 1085㎡	전	18,445,000 18,445,000	제시외건물소재로법정지상권성립여지불분명.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2007타경 13824	1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525-1 1274㎡	전	136,344,000 136,344,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동소 526-1 313㎡	전		
		동소 527 2001㎡	전		
2007타경 14421	1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45 48496㎡	임야	26,672,800 26,672,800	
2008타경 566	1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134 817㎡	전	3,268,000 3,268,000	제시외건물소재로법정지상권성립여지불분명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08타경 1965	1	해남군 마산면 외호리 285-1 49㎡	도로	2,057,400 2,057,400	일괄매각.목록2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분묘소재로 분묘기지권성립여지불분명
		동소 266-2 339㎡	전		
		동소 266-1 102㎡	도로		
2008타경 2821	1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 942 4171㎡	전	31,699,600 31,699,6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완도군 완도읍 미산리 304-1 1437㎡	전	15,807,000 15,807,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3	동소 산8-168 6839㎡	임야	3,077,550 3,077,550	
	4	동소 99-1 549㎡	대	8,509,500 8,509,500	제시외건물등소재로법정지상권성립여지불분명
2008타경 2968	1	진도군 고군면 항동리 산4-95 467㎡	임야	22,417,000 22,417,000	일괄매각
		동소 산4-97 643㎡	임야		
		동소 산4-102 466㎡	임야		
2008타경 3121	1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88-1 696㎡	임야	315,482,000 315,482,000	일괄매각.3번목록 지상에제시외건물 소재로법정지상권 성립여지불분명
		동소 88-3 109㎡	도로		
		동소 88-4 2725㎡	대		
		동소 88-6 169㎡	임야		
		동소 88-8 202㎡	임야		
		동소 산47-1 2051㎡	임야		
		동소 산47-4 279㎡	도로		
		동소 산47-5 1279㎡	임야		
[기타]					
2008타경 2548	1	선적항: 목포시 선박의종류와명칭:기선 102대 성호, 선질:강, 총톤수:603톤, 기관의종류와수:디젤발동기 2기, 진수년월일:1982년5월, 추진기종류와수:나선추진기 2개, 정박지또는항해구역:완도 항1부두	기타	577,263,000 577,263,000	기관및나선추진기 소재불명.2008타경4100[중복]

● 공고의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08. 9. 1.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08. 9. 8.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첨부해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법정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기존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종결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공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지급기한은 특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하므로써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압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압촉탁에 기입류는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자세한 산정서를 붙여서 재판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목적 또는 상가에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괄입찰의 물건에 저촉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대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주의깊은 민사집행과(신청사)에 비치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일부를 이루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에 대하여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공유자이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내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농부에는 예외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유자 물건중에 매각기일전에 조합신청이 취하되거나 철회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사무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별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게시된 공고나 변경에 이지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입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는 매수신청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열람 및 복사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u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검색]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경우는 컴퓨터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전의를 무하여 다른 제공한 것은 부서, 특시 그 중에 시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하는 할고, 미등재액산출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08. 8.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이영남